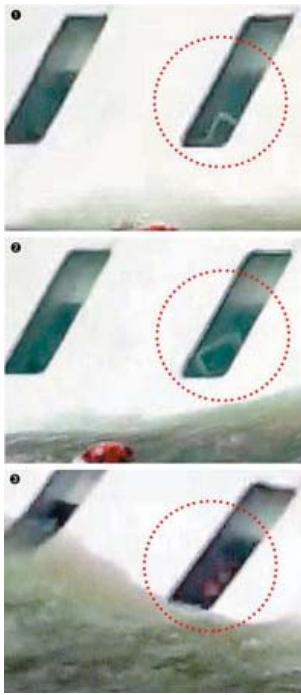


온 남녘땅을 죽음의 공포지대로 만든 살인 《정권》



완전히 뒤집어진 럭셔리선 《세월》호와 배에서 의자로 객실창문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



승객들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속옷바람에 허둥대며 나오는 《세월》호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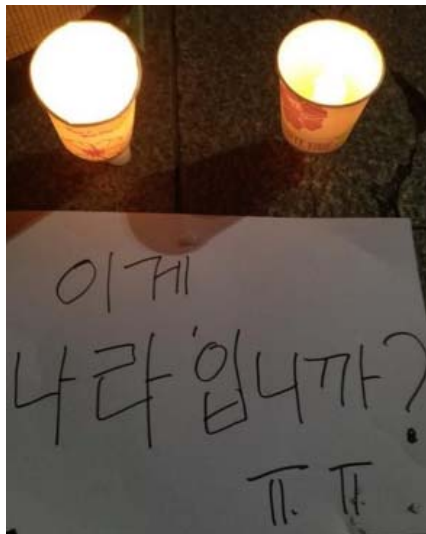
전광판의 시신영상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가족들



자식들을 찾으려 목놓아 울고있는 어머니들



서울 정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초불집회참가자들



시민초불집회참가자들이 쓴 글



《박근혜 퇴진》구호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시위참가자들

남조선에서 대형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되었지만 방방곡곡이 아직도 《세월》호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럭셔리선에 오른 근 500명에 달하는 승객들 가운데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나 어린 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승객이 구원의 손길을 잃은채 눈앞에서 대형러객선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거처는 바다속에 수장된것이다. 가라앉는 배안에서 터져나온 수많은 학생, 승객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다.

피해자가족들은 피터지는 절망감과 분노에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고있다.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일부 학생들은 집안에서도 창문으로 바다물이 들어오는것만 같은 환각에 빠져든다고 한다. 문향소들로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고 이번 참

사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초불은 남조선 각지에서 계속 타고르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성토하는바와 같이 이번 《세월》호참사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빚어낸 특대형 인재이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박근혜의 위기관리무능력과 무대응의 살인적인 처사가 얼마든지 살려낼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시체로 만든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검찰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박근혜는 어린 생명들을 바다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고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정말 안됐다.》느니, 《심심한 위로》니, 《죄송》이니 하는 서툰짜리 언사로 굶땀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은 안중

에도 두지 않는 이 행렬인간, 《유신》후에는 피눈물을 뿌리며 청와대를 찾은 유가족들을 매몰차게 만나주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아래에다 밀어버리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종자가족들의 피눈

물나는 곡성과 절규, 각계각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21일 청와대 소식처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한 박근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선장이 살인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등의 책임도 없는듯이 몸빼기에 달라붙었다. 그랬다가 사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사표》놀음으로 《국무총리》를 또 다른 제물로 내던지였다.

남조선집권자의 사고가 이 정도이니 그 아래 졸개들은 더 말할것도 없다.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지휘탑이 아니라.》면서 유가족들의 호소를 밀막아버렸고 청와대 홍

보수석이라는자는 《당국에 대한 무당한 비판부터 자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조에 동원된 공무원이라는자들은 시신발표명단을 배경으로 회피덕대며 기념사진을 찍어대고 숨겨가는 생명들을 옆에 밀어놓고 구급차를 빼내어 사사일에 이용하는것과 같은 상박의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러객선침몰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오죽했으

면 서방언론들까지 책임회피에 골몰하는 박근혜를 인간이 아니라 살인마라고 하였겠는가.

지금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박근혜에게 청와대입장권을 줘준 유권자들까지도 그에게 속히온 자기들의 가슴에 막심한 후회와 저주가 짝 차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동족대결각본인 《무인기사전》의 《복소행》설과 그 누구의 《핵위협》설을 내들리며 폭발직전에 이른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고 여론의 시선을 판데로 돌리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같은 살인마, 독재자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천하의 재앙거리는 하루속히 제거하여야 마땅하다. 정 확 준

꽃은 지지 않는다

어이하여 화창한 봄날의 락화로 차디찬 파도우에 떠다니는거냐? 왜서, 무엇때문에 광란하는 파도속 길디길은 수심속에 미래를 묻었느냐?

잠자리날개인양, 피어나는 꽃잎인양 환희와 열정의 봄기운 더해주고 얼굴에 피어난 맑고 그윽한 향기로 그늘진 부모들 가슴에 해빛을 주던 너희들

꿈도 많았으리라 같이 가자던 귀여운 동생 무사히 다녀오라 손짓던 엄마, 아빠들 그 사랑으로 행복의 미소짓던 아이들

하나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즐거움과 랑만으로 엮여오던 소중한 꿈 너희는 어디에 묻혔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느냐?

《엄마, 걱정마. 세바 자고 와요.》 마치도 이웃나들이가듯 하던 말 방안에 훈향으로 남긴 그 목소리 부모들 가슴에 피의 절규로 새겨놓고

아, 애석하구나! 너무도 절통하구나! 침몰하는 《박근혜》호에 피어나 매아닌 서리에 락화로 변해버린 너희들아

너희들 처음 안은 엄마들 미래를 축복하고 너희들 무한한 희망과 랑만의 앞날을 꿈꿨건만 첫결혼마 새긴 척박한 대지에 버림당해 비예의 폐지로 남뼉을 적시는 아이들아...

보아라 너를 낳아키워온 부모들의 손에 네 토래, 오빠, 동생들의 손과 손에 하얀 꽃송이들 피어 울고있구나

너희들 결코 질수 없나니 황량한 땅의 저 하늘에 솟은 분노의 함성 수천만의 피눈물, 절규의 웨침속에 너희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 꽃송이들

아, 아픔은 눈물만이 아니었구나 대지에 노호하는 초불의 바다였으니 삼켜버리리라, 태워버리리라 불행의 화근 박근혜무리들!

공화국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말한다

남녘어머니들과 함께 웨치고싶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결코 짧다고 할수 없는 나날이 흘렀건만 제주도로 수확여행을 가다가 번을 당한 수백명의 고등학교학생들중 단 한명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니 이런 참담한 비극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두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부르며 찾는 부모들에게 차가운 아들 딸들의 시신만을 던져준 저주로는 남조선사회와 청와대에 앉아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는 치마두른 박근혜에 대한 저주와 분노로 십장의 피가 막 끓는것만 같다. 이번 사고는 철두철미 사 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 중히 여기는 남조선사회의 색은 구조가 낳은 인재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 노력할 대신 사고와 관련한 자기의 책임을 《총리》에게 넘겨줬었다가 하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내뱉어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니 이런 무능력하고 철면피하고 잔인무도한 《대통령》 밑에서 사는 남조선의 아이들과 녀성들의 운명이 가궁하기 만 하다. 나도 남조선의 곳곳에서 매일 저녁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펼쳐나선 남조선녀성들, 어머니들과 함께 서서 목청껏 웨치고싶다. 《《세월》호침몰사건의 장본인, 무고한 수백명의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한 살인마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김 광 숙

랑하고 짹짹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들이기에 노래에도 자식들을 놓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네가 제일 좋다는 엄마들의 노래가 있겠지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는 자식들의 싸늘한 시체를 받아안고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아직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더욱 가슴저쳐하는 어머니들과 녀성들의 운명이 온 남녘땅을 울리고있다. 내 살붙이같은 한 이 아이들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돈에 환장이 되어 아이들의 목숨이 귀한지도 모르고 마구

오빠, 언니들이 다시 래어날수 있다면...

수확여행을 간다고 웃으며 떠났다가 하루아침에 차디찬 남해바다속에 잠긴 남녘의 오빠, 언니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룰수가 없다. 구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다가 《엄마, 사랑해요》라는 손전통화보문을 남기고 《세월》호와 함께 바다속으로 사라진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그리운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의 모습일가, 못다 이룬 배움의 꿈일가. 오늘 남녘땅 어디에서나 우리 나이포레의 학생들이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이런 《정부》 필요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책임져

내생케친 박근혜때당이다. 남녘녀성들의 가슴에 피눈물과 분노가 가득차있는것처럼 북녘의 우리 녀성들의 가슴마다에도 살인악당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이글거리고있다. 박근혜와 같은 행렬인간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녀성들은 자식잃은 부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나는 자식을 귀히 여기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 살인마 박근혜 《정권》에 민중의 준엄한 철추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면구역 평전1동 12인민반 김 영 린

라.》고 웨치는 함성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 오빠, 언니들의 저주와 분노도 담겨있을것이다. 나는 남해바다에서 령온으로 떠도는 오빠, 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웨친다. 만일 오빠, 언니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저주로운 남녘땅이 아니라 밝은 해빛 넘치는 북녘땅에서 태어나라 고, 그래서 나랑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유원지, 아이들의 야영소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자고.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 학생 정 향 미

지금 슬픔과 분노의 초불이 거리를 메우고있는 남조선에서 《가만히 있으라》가한 집권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 투쟁을 상징하는 새로운 류행어로 번지고있다. 원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각에 선배방송에서 울려나온 말이라고 한다. 당시 배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는 저들만 배에서 탈출하는 짐승같은짓을 하였다. 승객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제때에 탈출한 하였어도 목숨은 건질수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는 선원들의 말만 듣고 객실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다. 가만히 있으라며 죽음을 강요한것은 비단 선장을 비롯한 악덕선원들만이 아니라 소중한 제 자식들이 러객선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비보에 접하고 한달음에 진도앞바다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현 집권자인 박근혜는 《《정부》를 믿으라.》고 했다.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소리였다. 행여나 그 《정부》를 믿고 구조장황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 구조는 하루이틀, 열흘나마 더디게만 진행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그안에

만히 있다면 차체질것은 비참한 삶이고 죽음이다. 력대로 총칼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출현했던 남조선의 독재 《정권》들은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해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설교해왔다. 자신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당국을 비난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 각종 악법과 최루탄을 휘둘러 탄압하고 잡아가두었으며 《빨갱이》니, 《리적행위》니 하며 사람들을의 입에 자갈을 물리워왔다.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위협과 기만,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의 정치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도리어 남조선인민들에게 차체질것이란 더 참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손에 초불든 남녘의 인민들

만히 있다면 차체질것은 비참한 삶이고 죽음이다. 력대로 총칼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출현했던 남조선의 독재 《정권》들은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해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설교해왔다. 자신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당국을 비난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 각종 악법과 최루탄을 휘둘러 탄압하고 잡아가두었으며 《빨갱이》니, 《리적행위》니 하며 사람들을의 입에 자갈을 물리워왔다.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위협과 기만,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의 정치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도리어 남조선인민들에게 차체질것이란 더 참

중과 죽음을 강요하는 색은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고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노서린 민심의 폭발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랑심있는 언론들은 《가만히 있을수 없는 청소년들과 시민은 거리로 나왔다. 추모초불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박근혜 《정권》은 인민들에게 골백번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유가족들과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계속 우롱하고있다. 교육부가 산하의 교육기관들에 인터넷 등에 《《세월》호와 관련된 글을 절대 올리면 안된다, 처벌받

는다.》는 취지의 《학교학생안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려보낸것도 학생들이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고 《대통령》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세월》호관련보도를 통제하라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배포한것도 언론을 침묵과 사실외곡으로 내모는 추세이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초불시위를 《전문시위군》,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몰아대는것도 인민들이 초불을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모략이고 위협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반인민적이며 파괴적인 정체를 초소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통하지 만무하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는 속지 않겠다 하고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투쟁의 거리로 나서고있다. 민심은 인민들을 불행과 죽음으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4.19가 그렇게 터져올랐고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 반미의 초불바다가 그렇게 라올랐다. 잔인한 《정부》와 세상을 저주하며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바다속에서 죽어간 수백명 아이들의 원혼을 담고 분노의 초불은 남조선전역에서 더 활활 타고르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